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국제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AID TO THE CHURCH IN NEED KOREA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idtothechurchinneed
전화: 02)796-6440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예금주: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67 대승빌딩 8층 (04111)

제 2호 · 2016.02



©Grzegorz Galazka

빛과 용서가 있는 곳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기쁨과 고통, 그리고 실패를
모두 가져갑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며,
또한 사랑하시는
그분의 열린 마음을 느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삶에서 간직하라고 요청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청년들과 함께한 십자가의 길에서
2013년 7월 26일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자비의 희년을 시작하며, 저는 여러분과 제 생각을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거룩한 십자가 경배에 관한 생각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구세주가 흘리신 고귀한 피는 하느님 자비의 향유가 되어 우리 모두의 머리 위로 부어집니다. 그로써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특히 우리가 참된 고해성사로 죄를 용서받을 때 그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보여 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용서의 기쁨, 다시 새로워지는 기쁨을 전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악의 유혹에 빠져 어둠 속을 헤매던 유다가 있었고, 사도들 중에 가장 무모하면서도 가장 소심하던 베드로 사도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대사제 집에 쫓아 들어갈 만큼 무모했지만, 어떤 하녀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냐고 추궁할 때는 비겁하게도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 지장이 될 것을 염려하여 진리를 외면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실한 아리마테아의 요셉과 니고데모의 '밤의 친구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끌려들어 갈까 봐 걱정했기에 다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의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뒤로 물러나 있기를 원했습니다.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은 홀로 외로이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는 결코 '인기'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은 모험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갯세마니 동산에서 골고타 언덕까지 가는 길에서 이런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위로를 받지 못하고 암흑 속에 헤맨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줄기를 찾습니다. 순수하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모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연약함에 힘을 주고,

이 시대를 지배하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도록 신뢰를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구원받은 새로운 민족의 하와인 성모 마리아! 그분은 티 없으며 고통 속에서도 놀랍게도 새로운 아담과 결합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여 아이처럼 받아들여 주십니다. 성모님은 어머니의 모범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십니다. 또한 기도와 자비의 실천에 헌신하는 성직자들의 모범이기도 하십니다. 성모님은 십자가 곁에 계십니다.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용서하고 또한 용서받도록 도와주시길 어머니께 청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Mauro Kard. Piacenza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국제 ACN 재단장

사제서품을 축하합니다!



서울대교구 새 사제 20명 탄생과 부제 30명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지난 2월 5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서울대교구의 사제서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ACN Korea의 이사장이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님은 보좌주교 네 분과 함께 새 사제 20명을 서품했습니다.



“모든 사제는 땅에서 구원활동을 계승한다.” 본당 신부들의 수호성인인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의 말씀입니다. 사제가 거행하는 성체 성사를 통해 진실과 삶으로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제들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로 우리를 이끍니다.



그래서 ACN은 전세계의 많은 신학생과 사제를 지원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사제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혹은 수도 생활에 부름을 받은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구와 수도회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합당한 지원자들을 신학교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이 부족하여 성소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ACN은 가난한 지역의 사제와 수도자들의 양성과 연수를 지원하며, 미사 예물을 전달합니다. 그 밖에도 서적, 차량, 교육장소의 건설과 수리를 지원합니다. 신학생 한 사람에 평균 500유로의 금액으로 매년 1만 명의 신학생 교육을 지원합니다.

ACN은 전 세계의 신학생 양성을 지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또한 2년 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주교품을 받으신 ACN Korea 이사 유경춘 주교님과 정순택 주교님께도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요하네스 콜라우자
ACN Korea 지부장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아가 4,10)



커피 한잔하시겠어요?

그러면 고통받는 형제자매를 도울 수 있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기부도 하고!
이런 멋진 생각으로
즐거운 나눔을 실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북카페 '새오름'을 알고 계신가요? 서울 대교구 시흥동성당에서 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로, 수익금을 국내·외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지난 달, 이곳 북카페 새오름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수익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선물을 받은 ACN Korea 직원들은 시흥동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이범주 바오로 주임신부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새오름의 맛있는 커피 또한 맛볼 수 있었습니다.

시흥동성당 여러분과 북카페 새오름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 시기입니다.

우리 천주교인들은 이 시기에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올해 ACN은 특히 중동 지역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을 기억하려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인들의 고통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리아를 위한 십자가의 길> 소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길 소책자를 받아 보기 원하신다면, 전화 02)796-6440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는 십자가의 길에 함께해 주세요!



ACN과 함께 하는 십자가의 길

일시: 2016년 3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장소: 서울대교구 도곡동성당(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10 현대비전21 1층)
문의: 02)796-6440 / info@churchinneed.or.kr



고생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해발 4000미터 고지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수녀님.

변방 지역에서도 가장 변방에서 사는 이들. 이곳의 수도자들은 해발 4000미터의 터전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하십니다. 안데스 산맥의 추위 속에서도 예수님의 자비를 신뢰하고 이를 통해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볼리비아의 오루루(Oruru) 교구의 크지 슈토프 비아라식(Krzysztof Bialasik) 주교님은 이곳 신자들에게 나누어 줄 생필품 지원을 부탁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한이 있어도 수녀님들은 주민들에게 아낌없이 물품들을 나누어 주고자 하십니다. 특히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정성을 쏟으십니다. 빅토리아 에디타(Victoria Edyta) 수녀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 아이들은 살면서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따뜻한 대우도 받아 보지 못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해체되었고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녀님들은 아이들과 조출하게 나들이를 다녀옵니다. 아이들에게 담요와 빵을 나누어 주고, 나자렛에서 살던 예수님, 성모님과 요셉 가정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수녀님들은 사랑에 주린 아이들을 자비의 정신으로 배불리 먹이고 희망을 전해 주려 하십니다.

8개 수도회에서 모인 수녀님 22명은 자신의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주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녀님들이 하시는 일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부족한 사제의 역할도 대신하여 본당의 사도직 활동을 하고, 교리교육을 하며, 영성체를 준비하십니다. 또한 가난한 가정과 외로운 노인을 방문하고, 노숙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피정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고향을 잃은 이민자, 실항민을 돌보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녀님들은 감옥을 찾아 재소자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십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와 감옥에서 사는 청소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수녀님들은 사회의 가장 변방 지역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변방에서의 삶은 궁핍하고 어렵습니다. 부족한 것은 식수와 전기만이 아닙니다. 영성과 육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녀님들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수녀님들의 사랑의 샘물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ACN은 다달이 수녀님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50유로(약 5만3천 원)를 약속하였습니다. 이는 수녀님들의 다양한 활동에 비하면 결코 큰돈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적 가장자리로 기꺼이 향하는 걸음에는 자기희생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깃들어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마르 14,7 참조) **볼리비아**의 코차밤바(Cochabamba)의 수녀님들같이 무조건적 희생을 감수하는 이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수녀님들은 자기희생의 정신으로 가난한 교회를 돌보십니다. 이곳 살레시오 선교 수녀회는 여학생들에게 인간적 덕목과 그리스도교의 영성을 키워 주려는 갈망에서 10년 전 세워졌습니다. 수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그동안 종신서원하신 수녀님 5분을 포함하여 유기서원 수녀 39분, 수련 수녀 21분이 함께하십니다. 이분들은 이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십니다. 현재 수녀원에는 기도실 그리고 교실을 갖춘, 제대로 된 지붕이 있는 건물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기희생을 결심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이 이곳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ACN은 4만 유로(약 5천3백만 원)를 약속하였습니다. 이곳에 자기희생의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루루의 아이들도 이를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봉사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만약 수도자의 눈물이 말라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도자들은 세상의 불신과 아픔에 함께 슬퍼하며, 버림받은 노인들, 죽임을 당한 아이들, 이 모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어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아프리카를 방문하셨을 때 수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수도자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해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다만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느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많은 수녀님들은 십자가 앞에서 홀로 바치는 기도를 통해, 또는 성전에서 함께하는 기도나 성가를 통해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 드립니다.

알바니아는 공산주의 잔재가 여전히 남은 곳입니다. ACN은 가르멜 수도자들이 수도원 성당에 성가실을 만들 수 있도록 1만 5천 유로(약 2천만 원)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루과이** 플로리다(Florida)에 있는 맨발의 가르멜 수도회의 지붕이 폭풍으로



예수님의 선택에 오롯이 따른 이들. 우크라이나의 수녀님과 청원자들

파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도자들이 비를 맞으며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ACN은 4만 1백 유로(약 5천4백만 원)를 지원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룻자(Ludza)에는 예수 성체 수녀회의 작은 수도원이 있습니다. 몇 개 방과 성당 한 곳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이제 수녀님 6명과 여러 수녀님들께서 함께 하시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수도원에 입회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며, 수도원에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 혹은 휴가 기간에 수도원에서 지낼 수 있는지 등 문의도 많다고 합니다. 사실 건물은 너무 낡아서 수리가 힘들어 보입니다. ACN은 수녀님들의 겸손한 요청에 5만 유로(약 6천8백만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우크라이나** 부르슌(Burshtyn)의 ‘마타라의 주님과 동정 마리아의 종’ 봉쇄 수녀원 수도자 6분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수녀님들은 하루 중 8시간을 수도원에서 기도로 보냅니다. 그분들은 항상 기도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따르려는 많은 어린 여인들이 이 수도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하느님에게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택에 순응한다는 것이고, 봉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수녀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봉사를 한다는 것은 눈물을 닦아 준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섭리를 따르는 이들

일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정오까지 일주일에 5일 반을 기도로 보내는 봉쇄 수녀원에서의 생활

베네수엘라의 메리다(Merida) 교구의 ‘예수 성심 수녀회’ 수녀님들은 하느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합니다. 수녀님들은 후원금과 더불어 성상과 성화를 복원하여 번 수익금으로 생활하십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들의 사도직 활동입니다. 수녀님들은 예수 성심을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중심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수녀님들은 이 성심을

헤아리고, 하느님의 손 안에 완전히 보호받고 계십니다.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으며, 주문한 이가 바라는 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수녀님들은 하느님께 순종하면서 가난하게 생활하십니다. 이것이 수도생활의 근간입니다. 지금도 수녀님들은 후원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함께 수도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봉쇄 수녀원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현재 토지는 있지만, 베네수엘라에는 건축 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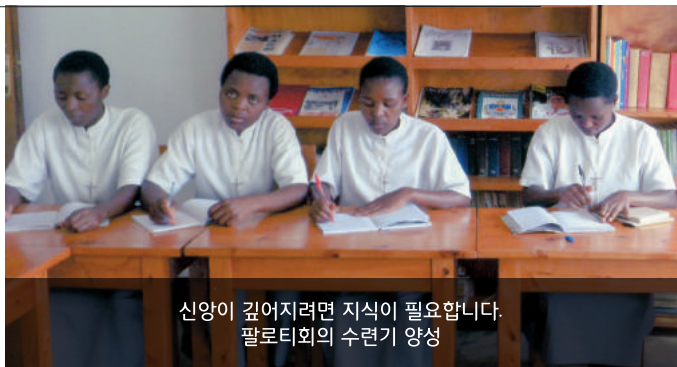
토지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ACN이 이들과 함께하길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는 1만 유로(약 3천만 원)를 약속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수녀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침, 자비의 실천

우르술라회 수녀님들은 복음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수녀님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등불을 켜고 주위의 사람들의 삶을 밝히 고자” 합니다. 그들은 특별히 교육과 양성에 힘씁니다.



신앙이 깊어지려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팔로티회의 수련기 양성

인터넷을 검색하면 수도회의 500년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수녀님들은 인도에서 50년간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인도 우타 프레디시(Uttar Pradesh) 주의 메루트(Meerut) 교구는 그곳에서 자비로써 교육과 수업, 즉 ‘아직 모르는 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수녀님들이 더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

황님께서는 교황 권고<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을 통해 교육을 가장 중요한 자비의 영적 활동이라고 알려 주십니다. 신앙을 위해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으로 사회정의와 복지를 이끌 수 있습니다. 메루트 교구는 수녀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남성 인구의 70%, 여성 인구의 80%가 문맹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성경을 직접 읽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수녀님들께서 머물 곳이 없고 생계지원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프란시스 칼리스트(Francis Kalist) 주교님께서는 수녀님들을 위해 작은 수도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만 5천 유로(약 3천3백만 원)가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에 자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2만 5천 유로는 결코 큰돈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르완다의 팔로티 가톨릭 사도직 수녀님들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십니다. 가족이 없는 아이들이나, 가족이 있어도 학교에 갈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거리의 아이들을 찾아 돌보아 주십니다. 수녀님들은 비뿔어진 길로 빠질 뻔한 아이들을 여럿 구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종교 수업을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수녀님들은 르완다의 새 교구들에 있는 학교를 방문해, 신앙과 영성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이 얼마나 풍부하지 발견하며 매우 놀라십니다. 수많은 결실 중 하나는 많은 이들이 성소를 따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입회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자비의 사도직 활동들은 여러분의 도움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ACN은 수녀님들께 1만 4천 유로(약 천9백만 원)를 약속하였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은 우르술라회 수녀님들의 중요한 활동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페루의 아야바리(Ayaviri), 이곳의 5세 이하 아이들 5명 중 한 명은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립니다.

이곳의 다섯 자녀를 둔 가정의 평균 월 소득은 45유로(약 6만원)로, 평균 수명은 페루의 전체 평균보다 7년이 낮습니다. 이 지역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누구보다 신앙이 깊습니다. 32곳 본당의 젊은이들이 점점 늘고 있고, 수도자의 수도 점점 증가합니다.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마태

11,25)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삼위일체회의 수녀님 4분과 함께 지냅니다. 아이들의 기도는 이 지역을 영성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샘물과 같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 수녀님도 4분 더 계십니다. 수녀님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옷을 짓는 일을 하십니다. 한 수녀님은 직접 한 땀 한 땀 자수를 놓습니다. 자수를 등의 도구들이 있으면 이 작업이 더 빨라질 것이고 수녀님들은 새로운 소명의 과제들을 더 수월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지역 교회는 영세하여 이런 물품 구입을 지원하



전례용품 공방. 하느님의 영광을 수놓다

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ACN이 9천2백 유로(약 천2백2십만 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곳의 신앙이 진정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희망. 예비 수도자들



수도원 원장이신 페트로넬라 수녀님

아프리카의 희망을 일구어 갈 수련 수녀들

“아프리카는 순교지입니다. 약탈의 역사가 깃든 순교지입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사랑합니다. 이곳은 여러 권력 때문에 항상 희생되었던 땅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아프리카가 고통받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생명력이 교황님을 사로잡았습니다. 순교와 생명력, 이는 부활을 믿는 우리 자녀들의 삶과 피가 되었습니다. 1994년 르완다 대학살 시기에 백만 명에 이르는 이들이 죽임을 당했고, 많은 이들은 난민이 되어 피난을 떠났으며, 가옥들

피난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지만, 그들은 언제나 고향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소실되었습니다. 1998년 1월에도 수녀님 여섯 분이 학살당하고 한 분이 심하게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의 카시카(Kasika)에서 반란이 일어나, 수녀님 세 분, 신부님 한 분 그리고 공동체 신자 70여 명이 살해당했으며, 2009년 8월에는 같은 지역에서 반란으로 수녀님 세 분, 신부님 한 분, 신자 20명이 또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피난을 떠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들과 함께 있기 위해” 다시 또 돌아온다고 페트로넬라(Pétronelle) 수도원장께서 말씀 하십니다.

수녀님들은 사랑을 통한 아프리카의 부활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수녀님들은 아프리카인들에게 고향에 진정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우선 농사일을 열심히 하면서 모범을 보입니다. 수녀님들은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고 병원과 구급차에서 일하십니다. 젊은 어머니들에게 영양과 위생에 대해 또한 성에 대해 교육하고, 유치원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하십니다.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급식소에 매일 배고픈 이들이 5천 명 이상 찾아옵니다. 수녀님들은 이들을 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나이 들고 병이 든 사제들을 돌보고 교리 교육을 제공하고 기도 모임을 여는 활동도 하십니다. 물론 수녀님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십니다. 수녀님들은 진정 자비의 진정한 샘물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티나(Christine), 안토이네타(Antoinette), 마리-요세(Marie-Josée), 이마쿨레

(Immaculée), 벨란실라(Bellancile), 마리-클라라(Marie-Claire), 레오니아(Léonie), 이들은 수녀회의 새로운 입회자입니다. 이들은 4개국, 곧 르완다,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브라질에 있는 200명이 넘는 수녀님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전에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직업과 수공업 기술을 배울 뿐입니다. 그들은 고유의 출신 문화를 잊지 않도록 자신의 고향에서 그리스도교의 정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일년에 한 번 몇 주간 시골에 있는 가족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이 수도회는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당시 플랑드르 선교 수도회의 하데위치(Hadewych) 수녀님께서 아프리카 방인 수녀원을 세우려고 뜻을 가지셨습니다. 수녀님들은 ACN의 설립자 베렌프리트 신부님을 ‘설립자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베렌프리트 신부님은 수도원 설립 초기부터 지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희망의 전달자 역할을 하시는 이 수녀님 200분께서는 ACN 가족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매우 가난하게 사셨을 것입니다.



생계를 지원하다

케냐 북부의 로드와(Lodwar) 교구는 케냐에서 가장 크면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곳에 아우구스티노회 수녀님들이 계십니다. 멕시코 출신의 수도자 다섯 분은 몇 년 전 케냐에 왔습니다. 초기에 수녀님들은 손수 제병을 굽고 손바느질로 제의를 지어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제병을 자동으로 굽는 기계를 새로 구입하여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더 많아졌습니다. 수녀님들은 후원자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저희는 ACN 후원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수녀님들의 기도를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ACN은 그분들의 생계를 계속 지원하려고 합니다.



요하네스 헤르만
폰 쥐트뷔크

국제 ACN 대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ACN은 지난 연말 한국에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공식 지부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로써 ACN 지부가 2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21곳의 지부를 통해 전 세계의 고통받고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성금을 모으고,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한국 지부 설립으로 새로운 교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이어서 교회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힘차게 성장할 것입니다.

ACN Korea 설립식에는 국제 ACN 재단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님과 한국 천주교의 어른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발자취를 뒤따르는 자리였습니다. 교황님은 2014년 8월 한국을 방문하시어, 아시아는 이제 교회의 주요한 활동 무대가 되리라고 분명히 알려 주신 바 있습니다. 한국은 평신도 스스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여 전파한 곳입니다. 순교자들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였고, 교황님께서 친히 그들을 시복하셨습니다. 한국의 초기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 고백을 한 용기를 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순교자들의 죽음만이 인상 깊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이토록 믿음이 깊이 자리 잡았고, 신자들이 기뻐하며 이를 이웃과 나누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ACN에는 이로써 또 하나의 ‘가족’이 생겼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 덕분에입니다.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이 돈을 뜻깊게 쓰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보상

저는 이라크의 아이들을 위해 후원해하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저만 생각해서 그런지 월급을 선뜻 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에 뛰어드는 마음이 생겨 고해성사를 드렸지요. 그때 어느 따뜻한 신부님께서 ACN에 대해 알려 주셨는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옷을 한 벌 살 때마다 5유로씩 따로 모아 두어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 돈이 뜻깊은 일에 쓰이리라 믿습니다.

저는 제가 삶에서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 미사를 통해 얼마나 크나큰 위로를 받았는지 여러분께 증언하고 싶어요. 하느님께서 어떻게 갚아 주셨는지 물으신다면 저는 베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느님은 정말 크나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리고 저는 다행히 ACN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한 후원자

독일에서 젊은이

정말 좋은 숫자 3!

도움을 통한 힘과 에너지

여기 세 아들이 모은 300유로를 보냅니다. 얼마 전 한 아들은 첫영성체를 하고, 다른 아들은 견진성사를, 또 한 아들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라크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이 돈이 쓰이길 바랍니다 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저희는 여러 사목 활동을 수행할 힘과 기운을 듬뿍 얻었습니다. 저희는 하느님의 자비의 성지를 건축할 것이고, 잊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후원 가족

아르헨티나의 한 사제



www.churchinneed.or.kr | /aidtothechurchinneed | /churchinneed

전화 02)796-6440 | 팩스 02)796-6439 |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67 대승빌딩 8층 | 후원계좌 신한 100-031-121620
예금주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 본 저작물은 한겨레결체로 제작되었습니다